

- 연두소감 -  
평화와 민주주의  
~ 사회복지학을 통한 '지혜'의 공동 구축을 위하여

일반사단법인 일본사회복지학회 회장 와케 준코(和氣純子)(도쿄도립대학)

노토(能登)반도 지진으로 새해를 맞이했던 2024년으로부터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재난과 전쟁이 남긴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가운데, 2025년의 막이 열렸습니다. 2024년 가을에 일본과 세계 곳곳에서 실시된 국정선거의 결과는 격동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비자금 문제로 흔들리던 자민당이 패배하고 국민부담의 경감을 내세운 국민민주당 등이 약진했습니다. 한편, 세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자국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가 승리하면서,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혼란과 분열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외의 국가에서도 이민자와 난민을 배척하고 자국민우선을 표방하는 정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19의 확산과 그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고통받아 온 사람들이 그동안 쌓아온 평화와 민주주의라는 이상(理想)보다 눈앞의 현실을 지키기 위한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또한 민주주의에 의한 하나의 선택이며, 그 결과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그러한 선택의 배경과 의도를 밝히고, 올바른 사실을 전달하며, 무엇보다도 취약한 입장에 놓인 사람들의 삶과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제도 및 실천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사회복지학에 요구되는 역할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혼란한 시대일수록 그 역할은 보다 중요해질 것입니다. 평화와 민주주의의 수호 역시 사회복지학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라는 것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일본사회복지학회는 2024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전쟁과 사회복지: 역사연구로부터의 배움'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12월에 실시된 포럼에서는 평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연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학이 개척하는 보편성의 탐구: 사람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라는 주제로 토론을 펼쳤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한 일본 사회복지학 연구는 장애, 고령, 아동, 아동, 의료, 빈곤(공적부조) 등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급변하는 세계정세, 특히 전쟁과 식민주의(혹은 남북격차), 기후온난화 등의 과제들이 세계시민인 우리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 변혁을 위한 학술적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및 분쟁이 사회복지학의 핵심적인 주제로 자리매김하도록 논의를 이어가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8월, 당시 학회장이셨던 이와타 마사미(岩田正美) 선생님이 8개 사회복지계 학회장님들과 함께 발표한 「전후 70년 8월 15일에 즈음한 사회복지계 학회장 공동성명」은 그 마지막을 「사회복지연구자 · 실천가로서 우리는 피(blood)가 아닌 지(wisdom)에 의한, 「억지력」이 아닌 「협력」에 의한 미래사회를 전망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갈 것을 함께 다짐한다"는 문장으로 매듭짓고 있습니다. 그 다짐을 지금 다시 한번 학회원 여러분과 서로 되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학은 어떻게 그 지혜를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활용할 수 있을까요? 한 단어로 '사회복지학'이라고 부르지만, 그 총체는 학회원 한 분 한 분의 연구 성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개인의 존재는 작기에, 자신에게는 이와 같은 거대한 주제를 마주해 나갈 힘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학회원 여러분들께서 연구를 통해 추구하고 있는 것은 평화와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모든 개개인의 생활보장과 웰빙일 것입니다. 그 원점에 비추어 볼 때, 사회복지학의 '지'가 비록 미시적 관점의 연구라 할지라도 의미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일본학술회의가 참가하는 세계과학회의에서 1999년에 발표한 「과학과 과학적 지식의 이용에 관한 세계선언(부다페스트 선언)」에서는 ①지식을 위한 과학, 진보를 위한 지식, ②평화를 위한 과학, ③발전을 위한 과학, ④사회 속의 과학, 사회를 위한 과학 등 4가지의 목표가 제창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술연구와 그 응용은 항상 인류의 복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연구 성과와 그 응용은 궁극적으로 인류의 복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을 각자,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인식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복지학의 '지'는 공동의 노력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갈 것입니다. 그 구축을 지원하고 발신하는 노력을 학회로서 더욱 촉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올 한 해 학회원 여러분의 활약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학회의 여러 활동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술대회와 학회지 등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토론하고 교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한-중-일 3국 간 학술교류 보고

-중국사회학회 사회복지연구전문위원회  
2024년 동아시아 포럼에 참가하여-

부회장/국제학술교류촉진위원회 위원장 혼고 히데카즈(本郷秀和)(후쿠오카현립대학)  
국제학술교류촉진위원회 위원(중국 담당) 양혜민(楊慧敏)(현립히로시마대학)

일본사회복지학회는 한국사회복지학회 및 중국사회학회 사회복지연구전문위원회와 '한-중-일 연구교류 추진에 관한 각서(이하 '각서')'를 체결하고, 각 학회의 연구대회 등을 통해 학술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교류 내용으로는 각 학회의 연례 학술대회 심포지엄 상호 초빙, 회원의 자유연구발표 기회 제공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24년도에는 중국사회학회 사회복지연구전문위원회가 주최한 2024 동아시아포럼(장소: 복건성 샤먼대학(廈門大學))에 국제학술교류촉진위원회 위원장 혼고, 그리고 담당위원인 양혜민 선생님이 방문하여 한중일 학술교류(각서 갱신 등)를 진행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립니다.

이번 대회는 '디지털 시대의 사회복지: 동아시아 국가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2024년 12월 14일(토)에 접수가 시작되어 다음날인 12월 15일(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접수 후 저녁에는 한중일 3개국 이사회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회의에는 고화영리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중국 측 위원, 한국 측의 김교성 부회장 및 이선영 국제교류위원장이 참석하였으며, 일본 측에서는 혼고(국제학술교류촉진위원장), 양혜민 선생님(국제학술교류촉진위원회 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중국 측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한-중-일 3국 간 체결한 각서 관련 협정의 지속(갱신년도를 맞이함에 따라)에 대해 심의하고, 대회 2일째에 서명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각서의 내용에는 3국 간 개최되는 학회에서의 자유연구보고자 초빙 등을 통한 상호교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회 당일인 15일 오전에는 3국 간 각서 서명에 의해 문서로써 갱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국제심포지엄과 분과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일본 측의 혼고가 「고령자 개호서비스를 실시하는 NPO 법인의 변화와 소셜워크- 일본의 과거 3차례 전국조사 비교 검토를 통해」(※03-04년도 미쓰이스미토모해상복지재단 연구조성, 09~11년도 과학연구비 보조금 연구【기초연구C】, 19-23년도 문부과학성 과학연구비 보조금 연구【기초연구C】)라는 주제로 보고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복지 책임과 복지제도의 상호작용 및 변화, 개호보험제도의 제도 제정, 보편적 아동복지의 추진 등에 관한 보고가 있었으며, 한국에서는 노인복지시설에서의 테크놀로지 활용, 신종 코로나 유행 시기의 노인의 정보통신기술(ICT) 사용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일본 회원 3명의 자유연구보고(사구(社區), 간병인 관련 내용)가 진행되었으며, 대회 전체적으로는 약 50여 건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 내용은 다양했으며, 많은 젊은 연구자들이 의욕적으로 연구에 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좋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활기로 충만한 대회가 진행되었으며, 추후 있을 한-중-일 학술교류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각서 갱신에 있어서 양 선생님(중국 담당·현립히로시마대학), 소 선생님(중국 담당·장춘인문학원), 공 선생님(한국 담당·서남학원대학), 강 선생님(한국 담당·동지사대학), 카지와라 선생님(총무 담당·서남여학원대학)을 비롯한 국제학술교류촉진위원회 선생님들, 담당 이사이신 키시타 선생님(무사시노대학), 카네코 코이치 선생님(현 부회장, 동양대학), 와케 준코 선생님(현 회장, 도쿄도립대학), 그리고 사전에 열성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조언을 주신 운영위원 및 이사 선생님들께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중국사회학회 사회복지연구전문위원회  
2024년 「동아시아포럼」 자유연구 발표 보고

도시사대학교 대학원

진능운(陳凌雲)

자유연구 발표를 통해 얻은 연구에 대한 자신감과 성장

본 연구의 발표 기회를 제공해 주신 일본사회복지학회 국제교류위원회, 중국사회학회 사회복지연구전문위원회, 그리고 동아시아포럼의 운영에 관여하신 샤먼대학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15일 중국 샤먼대학교에서 열린 동아시아포럼에서의 자유연구 발표는 제 대학원 연구 생활에 있어서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 주제는 '지역복지 실천에 있어 다양한 주체가 평가과정에 참여하는 것의 의의'였습니다. 본 발표는 중국 강소성 염성시 염소가도 W사구(社區)의 'Green Living, Blooming Community' 프로그램 평가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참여관찰 및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활동에서 다양한 주체의 참가가 지역복지 실천의 발전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고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평가 워크숍은 참가자들에게 평가의 '장'이면서 동시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촉진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②평가워크숍을 통해 지역에 뿌리를 둔 지식과 경험이 공유재산으로 인식되어진다는 것, ③이해관계자들의 평가에 대한 요구가 평가 도구를 통해 반영되어 프로그램 개선에 의미 있는 평가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 등입니다.

대회 당일, 제 발표는 대회 기조연설 세션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처음으로 중국어로 발표하는 기회이기도 했고, 더구나 기조연설이라는 중요한 순서에 배정되어 매우 긴장했습니다. 그러나 매우 기뻐던 것은, 기조연설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할당되어 있지 않지만, 그날 기조연설의 사회와 코멘트를 맡은 분이 제가 오랫동안 존경해 온 프로그램 평가 연구자인 팡타오 선생님이셨다는 점입니다.

팡 선생님께서 제 발표에 대해 코멘트를 주셨는데, 그 내용은 기존의 감정형 평가와는 다른 사회구성주의에 기반한 저의 평가 연구가 지역복지 프로그램 평가에서 더욱 개척해야 할 중요한 분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 연구에 대한 자신감을 크게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발표의 기회를 주신 일본사회복지학회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복지 프로그램에서의 평가활동의 의의를 더욱 깊이 있게 탐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준비, 조정 등에 힘써 주신 일본사회복지학회 사무국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사회학회 사회복지연구전문위원회  
2024년 「동아시아포럼」 자유연구 발표 보고

성서국제대학교 대학원

성량개(盛樑凱)

2024년 12월 14일(토)부터 15일(일)까지 중국 샤먼대학에서 개최된 중국사회학회 사회복지연구전문위원회 주최 동아시아포럼에서 자유연구 발표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소중한 기회를 주신 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중-일 3국의 사회복지학계의 많은 전문가와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노인복지, 사회보장, 사회복지 등 다양한 주제를 두고 활발한 토론을 펼쳤습니다.

자유연구 발표 세션에서 저는 '중국 개호복지사 전문학교의 커리큘럼 개선을 위한 검토-개호전문직 교육 커리큘럼에 관한 중일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과 일본의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학교의 교육 커리큘럼을 비교하여 각각의 특징과 개선점을 밝히는 것입니다. 포럼에서는 중국 전국 316개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학교 중 각 성(省)의 대규모 학교 27개교를 선정하여 커리큘럼 구성, 노인 관련 지식 및 이론 과목, 개호기술 관련 과목,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배분 및 시간 수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중국에서는 학교별로 개호기술 과목의 수업시간에 큰 편차가 있으며, 특히 지식-이론 과목의 수업시간이 더 많이 설정되어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법적으로 정비된 통일된 커리큘럼이 존재하고, 개호기술 과목의 수업시간이 지식-이론 과목에 배정되는 시간을 상회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중국에서도 전국적인 교육 기준의 통일을 지향하면서 이론교육과 기술교육의 균형을 검토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밝혔습니다.

요양 인력 양성은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며, 사회 전체의 복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커리큘럼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론과 기술의 균형을 갖추기 위한 교육계획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양국이 협력하여 더 나은 요양 인력 양성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많은 유익한 질문과 코멘트를 통해 향후 연구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사회복지학회 여러분들의 따뜻한 지원과 연구를 지원해주신 성서국제대학교, 그리고 지도를 해 주신 하야시 와카코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중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중국사회학회 사회복지연구전문위원회  
2024년 「동아시아포럼」 자유연구 발표 보고

도시샤대학 대학원

장지능(張芝菱)

사구(社區) 재택 양로서비스 '의료·요양결합'의 단편화를 위한 분석틀 구축

2024년 12월 샤먼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사회복지포럼 2024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포럼에서의 귀중한 경험과 참가자 여러분과의 활발한 의견 교환은 저의 연구를 심화시키는 데 있어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의료와 요양 수요 증가에 직면해 있으며, 사구 재가 요양 '의료·요양결합' 서비스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비스의 단편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정확한 현황 파악 및 효과적인 해결책 모색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입니다. 본 연구는 서비스 단편화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다각적인 평가를 위한 분석틀을 제시함으로써 중국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제적인 선행연구를 면밀히 검토하여 서비스 단편화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정리하고 분석하였습니다. 그 후, 중국 사회의 현황을 바탕으로 정책, 조직, 서비스, 정보, 자원 등의 다섯 가지 주요 측면에서 지역포괄케어 서비스의 단편화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분석틀을 구축하였다. 또한 각 측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서비스의 단편화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제안하였습니다.

발표 후에는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많은 선생님들께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다섯 가지 측면에 기반한 분석틀 및 평가지표에 대해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분석 프레임워크의 타당성, 평가지표의 실용성, 그리고 그 한계와 향후 개선점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타당성 측면에서는 중국의 현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다른 측면의 추가가 필요한지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선행연구와 중국 정책 동향을 근거로 다섯 가지 측면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다시 한번 설명하며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평가지표의 실용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활용 방안과 데이터 수집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데이터 수집 방법과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 실용성을 높이기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또한, 평가지표의 한계와 개선점에 관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지역적 차이에 대한 대응과 질적 데이터 활용 등이 향후 연구의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지표의 정교화 및 실용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향후 연구를 추진하는 데 있어 매우 유익한 시사점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학회는 자격 및 전문인력 양성에 어떻게 관여하는가?

이번에는 위 주제로 5 명의 회원을 모시고 진행한 좌담회를 5 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좌담회는 위 주제에 대한 학회 내에서의 토론의 물꼬를 트는 것을 목표로, 거침없이 의견을 서로 개진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회원들 간, 그리고 학회 내에서 토론을 심화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좌담회에 참석해 주신 학회원 선생님들과 홍보위원 선생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흔쾌히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칭 생략)

등단자: 이시카와 토키코(石川時子)(관동학원대학)  
구치무라 준(口村淳)(오카야마현립대학)  
히시누마 미키오(菱沼幹男)(일본사회사업대학)  
미와 키요코 (三輪清子) (메이지가쿠인대학)  
와타나베 유이치(渡辺裕一)(무사시노대학)

사회·홍보위원회: 이와나가 리에(岩永理恵)(일본여자대학),  
아리무라 타이시(有村大士)(일본사회사업대학),  
임새아(任セア)(릿쿄대학),  
오오사와 토모코(大沢朋子)(실천여자대학),  
카타야마 히로노부(片山寛信)(홋카이도 의료대학)

### 1 회 : 취지 설명 및 자기소개

**이와나가:** 오늘은 사회복지학회가 자격 및 전문직 양성에 어떻게 관여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뉴스레터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논문이라기보다는 회원들께서 가볍게 읽으시고, 그로 인해 학회 내에서의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하는 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최근 커리큘럼 개정이 사회복지학 대학 교수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복지사 이외의 자격제도와 관련된 경향도 있습니다만. 애초에 전문직 양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수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학생 및 졸업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계에서 어떤 사람을 길러낼 것인가, 거기에 학회가 어떻게 관여할 것인가라는 큰 주제로 선생님들께서 평소에 생각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 분씩 자기소개와 주제에 대해 가볍게 말씀해 주시고, 홍보위원 선생님들께도 자기소개를 해 주신 다음, 모두 함께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시카와:** 관동학원대학의 이시카와입니다. 저는 이와나가 씨와 학부를 같이 다녔고, 학부 졸업 후 공무원 신분으로 소셜 워커의 업무를 담당했는데, 그때와 급여 수준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 대학원에 진학했고, 일본여자대학교, 관동학원대학교를 경험했습니다. 전문분야는 사회복지학이며, 현재 사회복지학개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논의의 도화선을 당기는지에 따라 이야기의 흐름이 바뀌게 될 수 있어 말문을 떼기가 어려운데, 이 주제를 받았을 때 학회, 소교련, 사회복지사협회 등 세 전문직 단체의 입장이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쪽에도 발 디딜 틈이 없는 느낌입니다.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급여가 낮고, 지속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학생 때 동기부여를 유지했던 학생(졸업생)이 계속 일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까운데, 나는 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인가, 이전 대학에 있을 때부터 고민해 왔습니다. 채용 조건과 실제 일한 후의 수입이 많이 달라서, 실제 수입이 적어서 3 년차 정도에서 그만두는 분들의 상담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학회라기보다는 소교련의 입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교수로서 어떤 식으로 관여해야 할까 하는 고민을 늘 하고 있습니다.

**구치무라 :** 오카야마현립대학의 구치무라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대학에 부임한 것은 3 년 전이고, 그 전까지는 특별양호노인홈에서 25 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선생님들 중에서는 교직 경험이 가장 짧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뉴스레터 주제는 '사회복지학회는 자격과 전문직 양성에 어떻게 관여하는가'인데요, 저는 사람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회복지학회를 지탱하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대학의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선생님들의 주된 업무가 수업과 연구, 그리고 학내 업무일 것임은 예상하고 있었습디만, 대학에서 일하면서 또 다른 한 축의 업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시험 합격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는 마치 뒤에 가려진 명제와도 같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신임 조교수, 강사, 부교수 선생님들은 특히 상사로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교직 경험이 짧아서 각 대학의 국가고시 준비 실태를 조사해 보았습니다<sup>1</sup>. 주고쿠, 시코쿠 지방에는 전문학교를 제외한 22 개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 선생님들께 설문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그 중 딱 절반인 11 개 대학의 선생님들로부터 국가시험 대비 강좌에 관한 답변을 받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히시누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사회사업대학의 히시누마라고 합니다. 제 전공은 지역복지로, 그 중에서도 커뮤니티 소셜워크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회복지협의회 직원, 데이서비스 생활상담원 등으로 현장에서 근무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지역지원, 데이에서는 개별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서 느낀 것은 개별지원자와 지역지원자의 통합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의한 개별지원이 약했고, 지역지원과 관련해서도, 지역지원자들이 하고 싶은 일을 응원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적합한 것일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편, 데이서비스나 개별지원 현장에 가면 모두가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 애초에 직원들이 이용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떻게 어프로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서비스 범위 내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개별지원자의 입장에서, 지역에 대한 어프로치의 관점도 없고, 노하우도 없는 상황에서 개별지원과 지역지원을 통합해 나갈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그 결과 개별지원과 지역지원을 통합하는 커뮤니티 소셜워크라는 분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지역의 행정이나 사회복지협의회와 관계가 있고, 현장 분들과의 접점도 많아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봤어요. 그 과정에서 지역 지원의 취약점 같은 부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까 이시카와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인재 확보나 시스템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 스킬(역량)의 문제도 있습니다. 조금 논점을 정리하면서 내용을 정리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미와:** 메이지가쿠인대학의 미와입니다. 입양 부모에 관한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좁게는 입양 부모, 사회적 양호 아동, 넓게는 아동복지가 전문분야이며, 사회복지사 양성 실습 분야에서는 아동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동 분야의 전문가로서 불러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아동 분야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고, 견해가

---

<sup>1</sup> 口村淳・大倉高志(2024)「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을 향한 수험대책강좌의 실시상황과 운영의 과제 : 주고쿠·시코쿠 지방의 사회복지사 양성대학에 대한 질문지 조사」『오카야마현립대학교 교육연구기요』8(1) 1-10.

갈리는 부분도 많다는 점에서 제가 발언해도 괜찮은 것인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큰 테마이기에, 해당 테마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아동 분야는 다른 분야, 예컨대 노인이나 장애 분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셜 워크의 시점이 뒤늦게 들어왔다고 할까요, 아직 완전히 녹아들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동양육시설의 실습에서는 사회복지사로서 분리된 업무를 배우기가 어렵다던지, 아동의 개별 케어 업무에 치우쳐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아동양육시설에서도 소셜 워크의 시점을 통해 아동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실습에서 그것을 배우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실습을 하면서 개별적인 케어워크뿐만 아니라 소셜 워크라는 부분이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아동의 케어, 아동 케어 워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케어 워크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가정조정과 관련된 내용도 배울 수 있게 된 것이 비로소 최근의 일인 것 같고요, 이에 보람을 조금씩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 다음 호에서는 자기소개에 이어 토론에 들어갑니다. 다음 호도 꼭 읽어주세요.

## 제 5 회 CS-NET 살롱에 참가하여

쓰쓰미 사나에(후쿠오카현립대학 대학원)



제5회 CS-NET 살롱이 2024년 12월 21일(토) 14시부터 16시까지 하이브리드(대면 & Zoom회의)로 도시샤대학에서 개최되었으며, 당일 참석자는 18명(대면 13명, 온라인 5명)이었습니다. 17시부터 진행된 친목회에는 1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연구지원위원회에서는 신진연구자들의 정보교환 및 상호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신진연구자 네트워크(Creative Support Network: 약칭 CS-NET)를 발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임은 '살롱을 기획해 보시겠습니까?' 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내년에 실제로 신진연구자들이 주체가 되어 살롱을 개최하기 전 단계로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함께 살롱을 기획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총 4개(대면 3개, 온라인 1개)의 4~5인 그룹으로 나누어 자기소개와 의견교환을 진행했습니다. 자기소개에서는 평소 연구내용이나 고민, 불안감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어떤 살롱에 관심이 있고,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살롱이라면 참여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이때, 이전에 진행했던 살롱의 기획과 진행 상황을 참고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참여한 그룹은 대학원생과 대학의 교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교원으로 일하면서 박사과정 대학원생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 중인 분도 계셨습니다. 이 그룹에서는 논문 작성, 논문 심사, 경력 형성에 대한 기획안이 나왔습니다. 또한, 살롱을 기획함으로써 신진연구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이야기는 매우 흥미로웠고, 배울 점 또한 많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그룹별로 나누어 이야기의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용을 크게 분류하자면 연구, 경력 형성, 사생활 등이었습니다. 연구와 관련해서는 연구방법과 분석, 논문 심사를 통과하는 방법, 연구회·공동연구를 찾는 방법, 연구비를 받는 방법, 부담 없이 발표할 수 있는 기회, 학부에서 바로 대학원생으로 진학해서 연구를 이어가는 방법, 연구자로서 NPO를 설립하는 방법 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경력 형성에 대해서는 석사논문, 박사논문을 쓴 후의 연구 진행방법, 취업 후의 연구 진행방법, 구체적인 커리어 디자인(사회인 대학원생, 유학생, 학부에서 석사, 석사에서 박사, 박사에서 교수로 가는 길 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생활과 관련해서는 연구자이자 대학 교원으로서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방법, 일상적인 교류의 장(오픈채팅 등 틀을 통해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친목회는 인도 카레 전문점에서 열렸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각자의 연구 주제, 취업 활동, 평소 생활과 일, 일상에서의 '재미있는 에피소드'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각자 걸어온 길과 도전이 지금에 이르렀다는 것을 실감하며, 저 역시도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살롱 개최를 통해 이러한 기획이 신진연구자들의 교류의 장이 되고, 지역이나 연구 분야 등에 상관없이 부담 없이 대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또 만남의 장과 이바쇼(居場所)의 형성으로 이어진다고 느꼈습니다. 살롱이 동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많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장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지원위원님들과 신진연구자 분들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일본복지학회의 연구와 교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翻訳

金湊垣 (一橋大学大学院社会学研究科博士後期課程)

번역

김호원 (히토츠바시대학 사회학연구과 박사후기과정)